



1. 8일과 9일에는 시청 앞 광장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 즐거움을 더했다.
2. 비가 오는 가운데 열린 메인 행사에는 많은 시민들이 나와 축제를 즐겼다.
3. '서울사랑음식축제'에 참여한 (사)대한제과협회는 서울시 지회장과 사무국장들이 참여해 케이크와 샌드위치, 빵 등을 시민들에게 판매했다
4. '서울사랑음식축제'의 행사를 진행한 서울시지회장협의회 회원들과 김영모 (사)대한제과협회 회장, 이남호 사무총장.

Hi Seoul Festival 2004

새롭게, 재밋게, 신나게, 서울을 느낀다!

1천 만 서울 시민들의 신명나는 잔치마당으로 9일 동안 열전을 펼친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4가 막을 내렸다. 지난 5월 1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개장에 맞춰 시작된 이번 행사에는 15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몰려나와 축제를 즐겼다. 이번 하이서울 페스티벌은 시민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도록 다채롭게 준비된 행사가 단연 돋보였다. 축제의 절정인 대미를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에서 보낸 아쉬움을 뒤로 하고 막을 내린 하이서울 페스티벌을 감상한다.

글과 사진 · 김영주 기자

지난 5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 동안 서울을 뜨겁게 달궜던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4가 그 성대한 막을 내렸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하이서울 페스티벌은 지난해보다 더욱 강화된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서울을 선보였다. 시청 앞 서울광장 개장식으로 시작된 하이서울 페스티벌은 시청, 광화문, 명동, 인사동 서울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40여 개가 넘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올해는 새롭게(Refreshing), 재밋게(Exciting), 신나게(Dynamic)를 의미하는 'RED'를 테마로 지역거점프로그램, 시청광장 메인 프로그램, 부대 행사로 나누어 행사가 펼쳐져 매끄러운 진행이 돋보였다.

지역거점 프로그램은 경복궁, 경희궁 등지에서 펼쳐진 세종대왕 즉위식, 국악대축제 등 우리의 전통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고궁축제'와 젊음의 거리 명동, 신촌, 월드컵 공원에서 열린 '하이 서울 락'



6



7

- 5. 이날 모든 수익금의 전액은 북한 통천역 사고 돕기에 쓰여졌다.
- 6. 시민들에게 직접 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 7. 이날 준비한 각종 빵과 샌드위치. 간단하게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샌드위치가 가장 인기가 높았다.

협찬사

서울시지회장협의회



신일유통



페스티벌', '댄스 페스티벌' 등 지역의 특성에 맞게 꾸며진 행사를 선보였다.

8일과 9일은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메인 프로그램이 펼쳐져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본격적으로 휴일이 시작되는 8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서울의 밤을 만끽할 수 있었던 한류백야 축제에는 강수연, 장서희 등 유명 연예인과 이명박 시장이 직접 모델로 등장한 디자이너 앙드레 김의 '한류스타패션쇼', 엄정화, 베이비복스 등이 출연하는 '한류스타콘서트' 등이 열려 구경나온 시민들의 흥을 돋웠다. 9일에는 서울 시내 25개 지역구를 4팀으로 나눠 열린 '시민화합 줄다리기 대회'와 '전통 쇠머리대기' 등으로 남녀노소 모두 어울려 즐거운 웃음꽃을 피웠다.

(사)대한제과협회(회장 김영모)는 하이서울페스티벌 부대행사인 '서울사랑음식축제'에 참여해 서울 시민들의 즐거운 축제에 동참했다. 시청 일대에 마련된 '서울사랑음식축제'는 축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서울을 대표하는 음식을 맛 볼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로 (사)대한제과협회는 생크림케이크, 샌드위치, 바게뜨 샌드위치, 단팥빵 등을 선보였다.

(사)대한제과협회 산하 단체인 서울시지회장협의회(회장 신동균)에서 진행한 이번 행사는 부스에서 직접 만든 생크림 케이크와 샌드위치를 비롯해 단팥빵, 소보루빵 등의 시식코너를 마련하는 한편

시중 가격보다 50% 할인된 값에 판매했다.

구경 나온 시민들은 시트 위에 생크림을 가지런히 바르고 알록달록 예쁜 과일을 올려 짧은 시간에 케이크를 만드는 모습을 신기해 하며 직접 케이크 위에 생크림을 짜 보는 등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았던 메뉴는 허기를 간단하게 채울 수 있는 샌드위치였다. 중장년층에게는 옛 추억을 생각나게 하는 단팥빵도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를 위해 경동기계산업에서는 쇼케이스를 비롯한 기계류, (주)신라명과는 케이크시트, 한국리치식품(유)는 생크림, (주)웰가는 과일가공품, (주)디케이씨는 제품패키지 등을 협찬했으며 샌드위치에 필요한 제품은 신일유통이 지원했다.

서울시지회장협의회는 판매용 빵 2천 개, 마인츠돔과자점은 샌드위치용 빵을 지원했다. 이번 행사에서 얻은 수익금은 전액 북한 통천역 사고 돕기에 쓰여졌다.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4년의 축제를 시샘이라도 하듯 마지막날에 내린 비 때문에 시민 걷기 대회 등의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고 볼거리 행사 위주로만 진행되는 문제점도 지적됐지만 서울 시민을 축제를 통해 하나로 묶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는 점에서 칭찬받을 만하다. 해마다 더 좋은 프로그램과 철저한 준비로 서울을 상징하는 축제로 자리잡길 기대해 본다. ㉓